

美 개신교 목회자 대부분 “학교는 영성 형성에 부정적”

바나리서치의 새로운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대부분과 가톨릭 사제의 절반은 학교가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바나리서치는 ‘카드루스’(Cardus)라는 종교 싱크탱크와 협력해 지난해 650명의 개신교 및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영적 발달에 대해 인터뷰했다. 바나리서치는 특정 기관이 자녀의 영적 발달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했다. 카테고리는 ‘부모/가족’, ‘교회’, ‘학교’, ‘동료/친구’, ‘기독교 공동체 및 문화/사회’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응답자의 65%와 가톨릭 응답자의 50%는 학교를 아동의 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바나리서치 측에 따르면 실제로 학

교는 어린이의 ‘친구 및 동료’ 항목과 비슷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에 포함됐다. ‘친구와 동료’ 항목은 개신교 지도자의 61%와 가톨릭 지도자의 6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바나 리서치는 “가톨릭 성직자가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학교를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교파적 차이는 가톨릭 학교 교육의 보급과 가톨릭 사제들이 종교학교 교육의 영향력을 평가할 가능성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이외에 ‘문화/사회’ 항목은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 결과 나타났다. ‘문화/사회’ 항목은 개신교 목회자의 94%, 가톨릭 성직자의 92%가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카드루스’ 부대표인 레이 페닝(Ray Pennings)은 성명서를 통해 “학교, 특히 기독교 학술 기관은 어린이의 영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와 가정 생활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성 형성에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 부모 및 교육자들은 기독교 교육이 영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 옵션이 가능한 한 많은 가족에게 진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 ‘카드루스’는 복음주의 개신교 학교에 다니던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공립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보다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강해진 기자

[社告] 기독교일보 본사 사무실 이전

본지는 본사 사무실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새주소는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입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는 넓은 홀이 마련되어 있어 소통과 개방성을 높였으며 세미나실과 영상편집실이 갖춰져 있어 더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독교인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이 세속화의 거센 도전 앞에서 조롱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적, 도덕적 기준을 잃고 혼돈을 느끼는 가운데, 바른 신학과 성경에 근거한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기독교일보에서는 이 같이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 존경받는 교계 인사들과 학자들, 목회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 시대 교회와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기독교 매체로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해 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작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기독교일보를 후원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UMC 보수 신학자들 ‘反동성애’ 지키려 법적 분쟁 대비

미국연합감리교(UMC) 내 보수 신학자들이 지난달 승인된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 안건을 보호하기 위해 교단 내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일리노이 이벤스턴에서 ‘전통적 계획’(The Traditional Plan)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단 내 동성애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적 계획’은 지난 2월 연합감리교총회 특별 세션에서 승인된 바 있다. 티모시 브루스터 목사는 그러나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합법성, 의미, 적용, 법안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교단의 탈퇴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90066 청원’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3월 6일 연합감리교 사제위원회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측이 부동산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단의 탈퇴 절차를 보다 쉽게 허용하자”는 내용의 ‘90066 청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총회장이자 굿뉴스 매거진의 총지배인인 토마스 램브

리치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큰 초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위원회는 전통적 계획의 어떠한 부분이 연합감리교회 헌법과 일치하는지를 살피고, 통과된 대로 실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퇴 청원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청원은 지역 교회들이 부동산과 재산을 지닌 채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두었다.

이같은 과정이 연합감리교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결정한 뒤, 이를 발효할 것”이라고 했다.



인랜드교회가 안환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지난달 31일에 드렸다.

인랜드교회 제 5대 담임목사 위임예배

인랜드교회가 안환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위임사를 전한 안환 목사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생 때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지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오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면서 “교회의 주인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

한다. 교회의 몸 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봉사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신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적 기준’(사사기 7:1-8)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는 “한 분의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1명의 담임목사가 200명 되는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했을 때 약 7만 5천명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2면에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고난의유익” (시119:71)

4/15(월)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4/16(화) 5:20am 강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
4/17(수) 5:20am 강사: 김기동 목사 (고구마전도망 / 소중교회 담임)
4/18(목) 5:20am 강사: 남성수 목사 (OC 한인교회 담임)
4/19(금) 5:20am 강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담임)
4/20(토) 6:00am 강사: 이 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담임)

2019. 4. 15(월)~19(금) 새벽 5:20, 20(토) 새벽 6:00
장소 :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4/19/8:00PM 성금요일 칸타타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민주평통자문회의, LA한인회는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을 연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열린다

오는 11일 “독립운동의 완성은 바로 통일”이란 주제로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권영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회장 서영석), LA한인회(회장 로라 진)가 오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연합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소는 옥스포드팰레스 호텔에서 열리며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독립운동의 완성은

바로 통일한국이다”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각 한인단체장의 축사와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가 특별 초대되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이어지는 문화행사에서는 정찬열 시인이 윤희주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하고, 김원일 국악세계화협회 회장이 ‘독립군 행진가’를, 그리고 테너 최원현 씨가 ‘고향의 봄’을 부르게 된다.

주최측은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고 밝혔다. 대회를 맡게 된 권영신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은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평화통일에 한인들이 앞장서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센트럴 신학대학원 LA 공개강의



센트럴 신학대학원 몰리 마셜 총장

1895년 한국에 첫 번째 침례교 선교사를 파송한 북 침례교(현 미국침례교 American Baptist Churches)에 전통을 둔 정통신학교인 센트럴 신학 대학원(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총장 Rev. Dr. Molly Marshall)이 LA에서 공개 강의를 연다. 이 행사는 LA 지역에서 실시되는 4월 8-10일까지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수업의 일환으로 9일(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LA만나교회(4561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이고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까지다. 특별히 이번 수업은 마셜 총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 주목을 끄는데, 통역은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인 박성창 교수가 맡는다.

15년 간 총장직을 맡아 온 마셜 교수는 신학 및 영성 형성을 가르쳐왔다. 지난 3월에는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방문해 두 차례 강의를 이끌었으며 저서 <Joining the Dance>의 한글판 <성령의 초대에 응답하라> 출판기념 책 사인회를 갖기도 했다. 박성창 교수는 “이번 공개 강의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센트럴 신학대학원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나 주변에 신학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개 강의에 참석하시고 궁금한 점 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센트럴은 1901년 남북전쟁으로 분리된 남침례교와 북침례교를 통합하는 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양측 교단의 합의하에 미국 중서부지역 최초로 세워진 110년이 넘는 전통 명문 신학대학원이다. 1962년 ATS, 1979년 HLC의 정회원으로 인준된 이래로 꾸준히 양질의 신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50년이 넘는 동안 신학교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부(한국어 과정)를 내실 있게 제공하여 미국에 흩어진 한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2011년 봄에 시작된 한국부는 여러 지역에 분교를 개설하여 한국이민 교회에 건전한 신학을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와 신앙 전통을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가진 역동적인 신앙 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미국 신학교의 지성과 최신 학문을 겸비한 유능한 한국인 교수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한다.

박성창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센트럴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학교의 수장인 마셜 총장님도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받들어 사역할 것”

[1면 ‘인랜드교회 제 5대 담임목사 위임예배’에 이어서 계속]

인랜드교회의 기준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세속의 싸움으로 보았던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다”라며,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곳이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권

면을 한 함광훈 목사(서남노회 전 노회장)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바란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PCA 한인 서남노회 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금란교회 암 예방 세미나

가디나에 있는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목사)가 건강 세미나를 준비했다. 오는 4월 7일(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에서 ‘100세 시대, 암을 예방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암 예방세미나를 개최한다.

LA에 있는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암연구소 내 건강형평성연구소의 커뮤니티 아웃리치팀을 초청, 암 예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석부 목사는 “이민생활이 바쁘다보니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격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유방암과 자궁암, 폐암 검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문의나 예약은 나성금란교회(310-973-5106)나 시더스-사이나이 암연구소 커뮤니티 아웃리치코디네이터(310-423-7410, donghee.kim@cshs.org)에게 하면 된다.

주소 :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고난주간 특별 새벽부흥회

고난주간을 맞아 한인교회가 함께 ‘고난의 유익’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은혜한인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4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특별 새벽부흥회를 이 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개최한다.

“고난의 유익”(시편 119:71)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는 15일(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16일(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17일(수) 김기동 목사(고구마전도왕, 소중교회), 18

일(목) 남성수 목사(OC 한인교회), 19일(금) 김한호 목사(베델한인교회), 20일(토)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가 부흥회 강사로 서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전한다. 4월 15일(월)~19일(금)은 새벽 5시 20분에, 20일(토)은 새벽 6시에 진행되며, 19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칸타타가 진행된다.

주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446-6200

2019 남가주 이사야서 세미나

오는 4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사야서 세미나가 겨자씨 성경 연구원이 주최로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겨자씨 성경 연구원의 김선웅 원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의 강의를 통해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개관하고 신학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최측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이사야서 강

의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예약해야 하며 회비는 \$30(교재, 식사 포함)이다. 등록 및 문의는 박선웅 목사(714-213-5766)이나 김선웅 목사(714-234-6607)에게 하면 된다.

주소: 나침반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겨자씨 성경 연구원: WWW.msbi-world.org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제 7회 ATI 선교대회
 7th ATI MISSION CONFERENCE

건너와서 우 리 를 도 우 라
 사도행전 16:18

이 시대 마지막 선교의 불모지인
 북아프리카에서
 현지지도자 훈련과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Speakers

김상민 목사 해이브메이컨교회 담임 베조한인교회 중경총회장	공송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담임	이윤영 목사 생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담임	채희석 목사 프랑스 파리 아르메이컨교회 담임	Zephyrin Kossi Amegble Jesus the Saviour Gospel Church 담임	Toune Alphonse Trenou Ministere International Parole Agissante 대표

2019. 4. 29.30 (월),(화) 7pm
Faith Chapel 조은교회
 700 N. Valley St. Suite A, Anaheim, CA 92801; www.faithgcc.org

2019. 4. 30 (화) 9am~3pm
남가주늘사랑교회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www.ebcsocal.com

주관 : ATI Mission | 대표 박우원 목사
 문의 : 윤화숙 전도사 | 213-234-8277
 yunhwasook1024@gmail.com

ATI,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와 3·1 독립운동 (VI)

3·1 독립운동의 결과

3·1 독립운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3·1 독립운동의 결과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성공한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운동은 한민족이 독립의 강렬한 의지를 일제에, 그리고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였다. 이 운동이 비록 정치적 독립은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운동은 민족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여러 요인으로 내부 분열이 없지 않았던 민족이, 이 운동의 단일한 목적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이 영국과 독립 전쟁을 할 때 다양한 종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던 13개 주의 식민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에 나가 결국 승리를 가져온 사실에 견줄 수 있다.

둘째로, 이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9년 겨울, 상해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는 비록 망명 정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이 임시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구성원 8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서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 정부는 민주공화제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3·1 독립운동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재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셋째로, 이 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한국 통치 방법을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정치로 바꾸도록 하였다. 세계의 압력에 굴복한 일제는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총독을 소환하고, 해군대장 제등실(齊藤實)을 새 총독으로 세웠다. 그는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회견을 갖고 정치는 다른 개혁과 같이 국민의 행복을 촉진하는 일과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공헌할 것임을 말했다. 제등실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민들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그는 9월에 취임하고 나서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헌병제를 철폐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일반 관리들이 갈을 차는 것을 금지하고, 한국인 관리의 임명과 급여 규정을 바꾸고, 국문신문(國文新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문을 허가하고,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구호에 그쳤고 실제로는 더욱 간교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확립하였다. 헌병들은 제복만 바꾸었을 뿐 대부분 경찰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경찰력의 증강은 자연스러웠다. 1919년 경찰력은 그 전에 비해 3배로 늘어났고, 1920년에는 경찰관 주재소(駐在所)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새 총독은 9월에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은 총독부에 대해 '연합종교회견백서'를 제출하면서, 일본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행 법규 아래서는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였다.

- 교회 및 선교사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것.
 - 기독교 및 기독교인에 대한 관리의 차별을 철폐할 것.
 - 기독교계 학교에서의 성서교육과 종교의식을 허용할 것.
 - 한국어의 사용 금지를 조속 철폐할 것.
 - 조선 학생들도 일본 학생이 누리고 있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조치하고, 교과서의 선택권과 한국어 및 세계 역사의 학습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
 - 총독부가 허가한 사립학교 졸업생이 공립학교 졸업생과 똑 같은 특권을 가지게 해줄 것.
 - 기독교 문서에 대한 검열을 철폐할 것.
 - 교회의 출판물 발행의 제한을 완화할 것.
 - 교회 및 선교기관을 재단으로 인정할 것.
 - 기독교인으로서 구금된 정치범에 대한 학대를 중지할 것.
 - 형무소의 교화사업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것.
- 제등실은 선교사들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포교규칙'을 개정하였고, 과거의 시책을 수정, 완화하였다. 개정된 포교 규칙은 교회당, 포교

소 설립을 과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신고사항도 간소화했으며, 종교 규칙 위반자에게 벌금형을 삭제하였고, 포교 수속의 간편과 포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흔적이 보였다.

기독교에 대한 종래의 정책을 변화시켜 화해를 시도하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서교육과 예배의식의 허용은, 비록 도덕과 일본어 과목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이 운동이 가져다 준 값비싼 대가였다. 또한 총독부 학무국에 종교교과를 두고 전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본인 기독교인 3인을 임명하여 근무케 하는 형식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을 일제가 기독교에 온전한 자유를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잘못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혐의를 걸고 학생들을 체포하고, 또 모든 출판물을 검열했다." 뿐만 아니라 제등실은 밀주의 자유화, 담배 재배의 자유화란 명목으로 교회가 즐기게 전개해온 금주, 금연 정책을 교묘히 와해시키는 악랄한 법을 만들어 시행케 하였다.

넷째로, 이 운동은 한국민들에게 기독교가 더 이상 외래종교가 아니고 가장 애국적이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개념을 주지시켰다는 점이다.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이래로 이런 거족적 민족운동에 대규모로 참가하여 처음부터 이 일을 선도해 나간 종교는 천도교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한국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결과도 뒤따랐다. 1921년, 일반적인 백성들의 견해가 기독교에 대해 무척 호의적이라고 선교사들은 기록하였다. 한 선교사는 1923년 한 해 동안의 수세자가 지난 3년 동안의 숫자와 맞먹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운동에서 기독교는 '주체가 아니고 통로'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기독교가 확실히 주도를 했던 운동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평양에서 사역하던 감리교의료 선교사 홀(R.S.Hall)도 "조선민중들은 이 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도 조선의 애국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3·1 독립운동은 비록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인이 온 세계에 걸집된 독립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회는 사랑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운명과 같이하는 민족종교로서 그 자리 잡음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성경목회세미나에서 전태식 목사가 강의했다.

성경목회세미나 전태식 목사,

“말씀 정확히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이민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경 목회 세미나>가 3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첫째날인 28일 10시에 드려진 개회 예배는 박세현 목사의 인도로 남가주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의 기도, 웅기장이교회 김시은 목사의 성경 봉독, 오위용 목사의 특별 찬양, 남가주 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의 설교, 남가주 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 OC목사회 회장 김근수 목사, 미주양곡교회 지용덕 목사의 환영사, 남가주원로목사회장 최하량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주강사로 선 전태식 목사는 참석한 목회자 및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은 진지한 자세로 강의에 집중했다.

세미나 둘째날인 29일 전 목사는 갈라디아서 3장의 '죄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을 대조하며 "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마 5:17~19절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갈 3:8)를 근거로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라는 구분에 오류가 있

다며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교회 안에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 간에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를 바탕으로 "사람이 고백시킨 것과 하나님이 고백시킨 것에 완벽한 차이가 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백시킨 것이다."라며 자신의 거듭남의 체험에 비춰 이를 설명했다.

"30몇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안믿어졌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거듭난 시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의 말을 가르치니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안믿어진다. 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 3차 세미나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찬양교회에서 열렸다.

강사로 선 전태식 목사는 순복음 진주초대교회를 설립했으며 아바드재단 대표이사, 한국기독교부흥회 상임회장이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한국교회연합 법인이사를 역임했다.

선한목자교회 아동부, 고등부 사역자 청빙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아동부와 고등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사역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분, (3)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며,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 7:30pm) 인

도 및 기타 관련된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력서 및 신앙간증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및 추천인 2명을 기재해 최 클락(Clark Choi) 교육부 담당 목사에게 이메일(icklarksmn@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http://www.sunhanchurch.com/>

• 어떤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운전자 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로세르~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church everyday

창립 20주년 임직예배

2019년 4월7일 (주) 4:00PM 에브리데이교회 본당

시무장로
박찬형, 방성일, 배성훈, 이성호

안수집사
권혁록, 김국태, 김광겸, 김대중, 김병희, 김신웅, 김운관, 김장년, 김정관, 김정우, 김주현, 남태상, 노춘명, 민병호, 박준수, 오성일, 왕정현, 우명군, 유해훈, 유종일, 은영기, 이문수, 이승석, 이영환, 임재용, 장재혁, 정용욱, 정윤걸, 주용업, 최진호

권사
허문철, Albert임, Andrew송, David김, Henry최, Mark조, Mike김, Steve김

명예장로
김근, 김원배, 김화영, 노재영, 서범석, 신조경, 조병철, 홍은택

명예권사
김경화, 김명화, 김세연, 김승희, 박난숙, 서화순, 엄태연, 염명순, 오은숙, 윤성은, 이상표, 이상연, 이연수, 장순자, 장태성, 정명희, 정신원, 정현숙B, 홍미순, Joy김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32.6628 F. 818.368.0089
www.churcheveryday.org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6>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것은 아버지학교의 구호이다. 지금(4월 1, 2, 7일까지) 오픈 카운티 지역 에나하임에 위치한 늘푸른선교교회에서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 14기가 열리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20명의 목회자가 훈련생으로 참여했고, 15명의 목회자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는 성령 사역의 일환으로 여기기에 선교적 사명감이 있다.

특히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교회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학교임으로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십이 참여하는 학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믿는다.

아버지학교의 비전선언문이 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학교 운동”이 그것이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가 없는 곳은 없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기대 그리고 사명감이 다 있다. 필자는 선교를 통해 여러 나라 민족들을 방문한 편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들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민족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종족이든지 가정의 문제나 아버지들의 탈선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는 민족은 하나도 없음을 보았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아버지학교의 구호 아래 이 아버지 학교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운동이라 생각한다. 이미 아버지학교는 지난 20여년 세월 동안 세계 72개국에 보급되어 36만명이 넘는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한국어권은 물론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아버지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선교의 열매도 많이 맺어 가고 있다. 특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별히 미주에서의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전세계에서 가장 처음 열린 곳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미주 아버지학교 본부를 엘에이에서 시애틀로 옮기면서 새 본부장이 선임되었다. 미주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기섭 장로이다. 한 눈에도 시원하고 인자한 모습을 지닌 활력 있는 리더십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엘에이 목회자 아버지학교에도 강사로 참여하면서 큰 격려와 응원을 하였다.

엘에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이번 14기 학교를 진행하면서 한 걸음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미주 전역에서 한번도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개설하지 못하는 지역 목사님들에게 그곳을 찾아가서 아버지학교를 개설하고 섬기기 위한 비전이다. 목회자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참다운 아버지상을 회복하여 건강한 목회자 가정의 모범을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다.

또 교회 안에 평신도 아버지학교를 개설함으로써 교인들 가정에게도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찾게 하여 준다.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건강해 진다. 건강한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믿는다.

아버지학교의 아름다운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그 꿈이 미주 전역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믿고 기대하며 응원한다.(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하나님이 주신 행복재료들

필자의 팔순 노모님은 고향을 지키십니다. 나름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좋은 성도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인입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심심찮게 살아가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고향의 어머니가 늘 걱정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어머니와 통화합니다. 안부도 여쭙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필자의 안병을 어머니께 알려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장 등으로 통화를 못할 때는 형제 카톡방에 필자의 상황을 알리고 어머니께 전해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님은 몸과 맘이 많이 약하십니다. 고령인데다 젊은 날의 고단한 삶 때문에 무릎과 허리가 약하고, 다섯 아들들의 삶들을 챙기느라 마음도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수화기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의 건강과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하시지만 쉽게 알아차립니다. 어머니 불편을 감지한 날엔 그 불편의 해소가 통화의 주제입니다.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지역만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의 행복한 삶을 자랑하며 어머니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자는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필자의 건강, 손자 손녀들의 행복, 온 가족의 화목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행복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머니의 행복이 들려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느끼면서 저도 행복해집니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재료들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행복 재료는 우리들의 건강, 만족, 감사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행복재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행복재료들이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주신 제도들입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주신 제도 중 첫째가 결혼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결혼식을 기쁨의 생산소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결혼의 즐거움을 보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신랑은 징집에서 면제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 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NIV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a man has recently married, he must not be sent to war or have any other duty laid on him. For one year he is to be free to stay at home and bring happiness to the wife he has married.” 새신랑과 그의 아내의 행복을 위해 군복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주신 제도 중에 둘째는 잔치입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제사 제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7대 절기들은 모두 제사인데 알고 보면 모두 잔치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잔치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남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잔치를 언급하십니다. 기쁨이 잔치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잔치를 말하면서 함께 즐기라고 명령합니다. 진정한 잔치는 더불어 즐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잔치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은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 잔치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울러 잔치를 일주일 내내 즐기라고 합니다. 성도는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잔치의 행복을 누리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 주신 제도 중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정하신 제도임을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새로운 땅에서 우상들을 제하고 새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번제를 포함한 여러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명령어는 “함께 먹으라!”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남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재료들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무료 강의 안내

비영리단체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를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비영리 단체는 매년 5월 15일 까지 IRS Form 990 이라는 Federal 세금 보고와 CA Form 199 이라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IRS에 의하면 비영리 단체가 3년 이상 세금 보고 하지 않는 경우 비영

리 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연간 Gross Income 이 \$50,000 되지 않는 작은 비영리단체인 경우 990N 과 199N이라는 온라인 방식으로 직접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의할 예정이다.

비영리 단체를 준비하거나 현재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금 보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비영리 단

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예로 사항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도인, 학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료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교수는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강의와 관련한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미주 최대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국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부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목적

출애굽기 9:13-2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출애굽기 9:13-26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세월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의 노예 신세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 신앙의 초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후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5-6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실수 중에 실수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5:9-14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 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지만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증거(표적)를 보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죄 값으로 팔려가게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는 세월동안에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있었기에 영적인 소망도 없이 애굽의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죄 값은 이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될 때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종살이 하느라 애굽인들의 종으로 의식화 되어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깨우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찢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해주셔도 그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에서 생활하며 세상 문물의 최고 학문을 수학(修學)하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40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야한다는 명령과 지시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기사(奇事)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유로운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출9:20-21).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가하는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역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자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균을 없애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을 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는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살리시는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의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이사야1:19-20)”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생계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운 처지이지만 주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처럼 교회에 나온 발걸음은 참으로 복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34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했으며 사도행전 2:4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이 이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을 전해야하며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인 사단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이성을 잃고 사단의 울무에 걸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영원히 시달려야 할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고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불신앙의 형벌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미리 앞당겨 치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39에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있으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 계심은 천국이 있다는 증거이며 악령이 사람을 미치게도 하며 불행하게 생지옥을 만드는 것을 보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야 할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꾸어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시간부터 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수고는 유익한 성과를 거두게 하신 것이고 불신앙으로 심은 죄악은 사단이 열심히 가꾸어서 불행하게도 저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을 각오해야 할 입장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대마햄프함추환

Dietary Supplement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펠로우 교수 겸 연구자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추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천연소재입니다.
-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비노이드를 자라게 영양을 흡수하여 일 년종 채로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ABA는 미국알콜이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 만성질환,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 대마비 헵트세드는 미국 타일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맥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맥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햄프함추에 함유된 베타인(beta인)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추환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250 + tax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고난주간 한끼 금식 한생명 살리기

2019.4.1 |월| ~ 4.21 |일|

2019전세계 빈곤아동돕기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성도들이 하루 한끼 이상 굶고 그 금액을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금도 1분에 30명, 하루 5만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월\$35 이면 아동 한명이
한달동안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100 이면 아이티 아동 10명이
한달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5,200 이면 아프리카에 4,000명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헌금은 32개 빈곤국가의
아동들을 위한 급식 및 식수지원사업비로 사용됩니다.

877-499-9898

kr.goodneighbors.us

보내실곳: Good Neighbors USA P.O. BOX 5969, Buena Park, 90622

문의: jkim@goodneighbors.us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52개 지부, 북한 및 해외 38개국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유승원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회 성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회가 지난 29일(금)부터 31일(주일)까지 개최됐다.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를 강사로 한 이번 집회는 '어려울 때 오히려 잘 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30일(토) 새벽,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다'(골3:12-17)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유승원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신자가 있다면? 그건 자신은 신자인데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겨울에는 붙어있는 가지나 떨어진 가지나 다 같아 보인다. 하지만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 지금은 비록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열매가 맺힐 때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유 목사는 "고린도교회를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용서를 받았기에 거룩한 것이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사회학적 인간집단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목사는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온다. 1만 달란트는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빚이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채무자이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는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됨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용서할 것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다. 우리 또한 용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앤더슨 김 기자

미주 한인 교회 및 선교단체 본질적 사명 회복하고 선교위해 연합해야

워싱턴주 선교대회 위한 특별 선교 세미나 열려



2019 워싱턴주 선교대회 위한 특별 선교 세미나

오는 4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진행 될 2019 워싱턴주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 선교 세미나가 지난 25일 웨드넬웨이 등대교회(담임 안영식 목사)교회에서 열렸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정환 선교사(KWMO 대표, 미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는 "북미주 한인교회역사를 통해보는 선교 동원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근대 선교와 미주 한인 선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미주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워싱턴주 한인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 사역을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하며, 4월에 있을 워싱턴주 선교대회를 통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사명으로 연합되고, 미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교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 선교사는 "근대 선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해안선 선교, 내륙 지방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로 나눌 수 있다. 해안선 선교 시대는(1792-1910) 항해술 발달과 항로 개발을 바탕으로 개신교 선교가 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내륙 선교 시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철저한 준비와 언어 훈련을 통하여 대륙으로 선교를 나섰다. 다음으로 1934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전도 종족선교는 종족의 개념이 형성되고, 선교의 목표를 세워서 선교하기 시작한 시기로 근대 선교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먼저 근대 선교를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김 선교사는 "그러나 급속한 복음 전파와 선교 확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와 세속 문화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사람들의 정신은 쇠퇴해졌

고, 또한 많은 교회가 교회 성장에 목적을 두며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가 됐다"며 "이런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선교의 목적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다음세대에게 선교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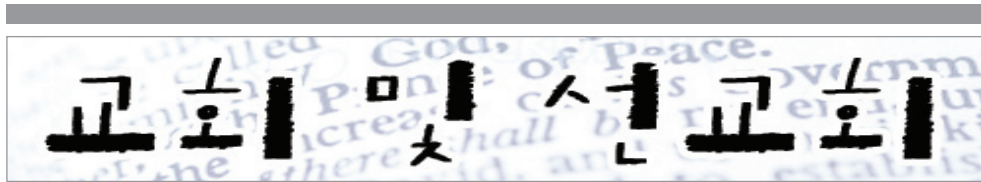
그는 "오늘의 교회는 목회 리더십이 얼마나 선교에 목적을 두고 성도를 지도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선교에 도전 받고 얼마나 동기 부여가 되고, 선교를 공감하고 헌신하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성도들이 얼마나 선교지 사역에 참고하고 있으며, 선교지 사역을 위해 재정헌신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선교사는 "건강한 선교 동력을 가진 교회는 먼저 담임 목회자의 선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선교 훈련과 교육 강화를 통한 훈련, 그리고 단기선교의 활성화 선교 동원력 증가 및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져 현장 선교사의 선교 도전으로 이어질 때, 지역 교회 선교 동원력과 선교 재생산력 증가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의 선교는 선교 전문 네트워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미주 한인 교회의 가장 취약점은 교회가 선교를 할 수는 있지만, 선교 커뮤니티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이끌지 못했다"며 "교회의 선교 단체 지원과 선교 단체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교회의 선교 성장이 어우러져서 선교 동원을 공유할 때 최대의 선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는 오는 4월 9일(화) 오전 10시 시애틀 선교대회(담임 안광진 목사)에서 워싱턴주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 원 기자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김성식 담임목사</p> <p>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p> <p>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p> <p>씨니킴 담임목사</p> <p>LA씨티교회</p> <p>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한양교회 예배 15분 전</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인2세를 복음화하며, 이인1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p> <p>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ilen 코너) T. (213)386-2233</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최수환 담임목사</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p> <p>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을 휘어)</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전 1:30</p> <p>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양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지용덕 담임목사</p> <p>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p>
<p>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김경철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정병노 담임목사</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인근 일대)</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정세훈 담임목사</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성 7:21)</p> <p>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정인호 담임목사</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p> <p>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1부예배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곽건섭 담임목사</p> <p>예은장로교회</p> <p>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박은종 담임목사</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p> <p>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 (소셜메) 오전 11:00</p> <p>정창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p> <p>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노 오후 6:30</p> <p>GE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김신 담임목사</p> <p>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p> <p>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경향 사역, 십자가 사역</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초롭소 초초 정신의 초롬, 바른교회관의 초롬</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김은목 담임목사</p> <p>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매해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p> <p>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p>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교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성회 오후 7:45
절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성회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출산이야말로 여성 인권 가장 보장할 수 있는 방법”
50여개 시민·종교 단체, ‘낙태 반대 국민대회’ 개최



낙태반대국민대회에서 ‘낙태법 유지는 생명존중’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50여개 시민·종교 단체가 3월 30일 광화문역 인근 원료공원에서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수진 대표(옴은가치시민연합)는 “태아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다. 낙태 행위는 여전히 인간의 윤리, 도덕, 사회 법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낙태 천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다. 만약 헌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지면 사회적 윤리적 파장이 엄청날 것일 뿐 아니라 생명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 생명경시 사상이 대한민국을 덮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보세우기학부모연합)는 “아이들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31만4000명) 수는 출생아(30만9000명) 수를 뛰어넘는다. 인구 자연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자연감소 시점이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앞당겨졌다”며 “일본보다 훨씬 빠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감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법에선 국가적 재앙의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박 대표는 “태아가 생명이란 정도만 알다가, 수정된 지 16일이면 심장 이 뛰고, 6주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기고 11주면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또 낙태 방법도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다. 현재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제 낙태율은 세계 1위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태아가 세포 덩어리라는 주장을 하는 배경을 보니 급진 페미니즘 이론을 가진 성평등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가짜 인권으로 남녀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성별 해체와 낙태 합법화 등을 주장해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했다.

이신희 대표(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킹)는 “일부가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해서 모든 것이 인권이 될 수 없다. 개와 랍스터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태아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유산을 해도 엄마는 가슴 아파하며 울고 지낸다. 그런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이를 죽이는 젠더 페미니스트는 생명 존중을 파괴하고 인간을 말살시키기 위해 모든 걸 합법화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환경은 변명이 안된다. 요즘 출산장려금에 자녀장려금 등 복지가 잘 돼 있다. 생명을 존중되어야 한다. 쾌락을 위해 생명을 짓밟아선 안 된다. 양심을 버리기 위해 법을 이용할 수 없다. 언론의 농간과 젠더 페미니스트에게 속지말라”고 했다. 서울대트루스포럼에 속한 한 여학생은 “사회 경제의 이유, 성적 결정권의 이유를 대며 낙태를 허용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태아도 고귀한 생명”이라며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언젠가 가정을 꾸리게 될 예비 엄마로서 현재의 법이 충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장애나 질병을 가질 때, 강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때 이미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청빙위원회가 진재혁 목사에 이은 제3대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로 최성은 목사(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최종 결정했다. 진 목사에 이은 또 한 번의 이민교회 목회자다. 이에 교회 측은 오는 4월 7일 오후 6시, 분당 분당에서 임시제직회 및 임시사무총회(공동의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청빙 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성은 목사는 한국침례교신학대학(B.A)과 미국 루이빌 센터기에 소재한 남침례신학대학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한국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학생부와 대학부를 담당하다 지난 1995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교회를 섬겼다. 내슈빌에서 다리놓는교회(Bridge Community Church)를 개척했다. 지난 2011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미국, 북한 인권 단체들에 약 57억 원 지원한다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북한의 종교 자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운백 대사가 27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KCC) 관계자들을 만나, 종교·자유권리 행사를 추진하는 북한의 종교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KCC는 북한 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데 기여했고, 이를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낸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법의 모태인 북한자유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의회로 여러 차례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3월 12일 미국 무부가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살해 119건, 실종 87건 등을 포함해 총 1,304건이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신앙 생활이 당국에 보고될까봐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철저

하게 이를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에 총 500만 달러 지원키로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기관들을 위해 총 500만 달러(약 56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 마감은 오는 5월 17일까지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동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약 39억 70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 증진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美 “낙태 지지하는 외국 단체에 지원금 주지 않겠다”



©SBA 리스트 제공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 시티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다른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외국 단체들에게 더 이상 국제 보건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멕시코 시티 정책의 확대로 해외원조기금을 받는 비정부기구가 낙태를 지지하는 다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온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행위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거절하는 한편, 여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포함

해 글로벌 건강이라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도 했다.

이런 제도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있던 것을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폐지했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 이에 따라 계속해서 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은 가족계획의 한 방편으로 낙태 시술이나 이를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들과 국제적인 낙태 수요 사이에 장벽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의 친낙태 정책을 멈추는데서 그치지 않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반(反)낙태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혜진 기자

“토네이도 속에서 40명의 아이들 지켜주신 하나님”

미국에서 최대 풍속 135mph의 강력한 토네이도 EF2 때문에 지역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교회에 있던 아이들과 학생들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맥크래켄 카운티에 소재한 자이언

침례교회 교인들은 토네이도로 교회 지붕이 날라가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40명의 유아들과 10명의 직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유아부 교사인 미셸 러싱은 WPSD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말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대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교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1:30 한국화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제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움 받아 함께 갈라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왕상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중교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명의찬양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안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무신론자’ 과학자의 회심

“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

프랜시스 콜린스 美 국립보건원 원장, 콘퍼런스서 간증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발티모어에서 열린 '2019 바이오 로고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세계적 생물학자이자 의사인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68)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원장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여정을 소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콜린스 원장은 미시간 대학의 인간유전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포성염유증, 신경섬유증, 헌팅턴병과 같은 유전 질병의 유전자 결함을 발견하는 데 기여했으며, 역사상 최초로 인간유전체연구사업(게놈 프로젝트)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콜린스 원장은 최근 발티모어의 이너허버의 하얏트 리젠시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2019 바이오 로고스'(2019 Bio Logos) 콘퍼런스에 참석해 무신앙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전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약 300여 명의 목회자, 과학자, 철학자들이 참석했다.

콜린스 원장은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물리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그는 “나의 연구 영역이 신앙과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과학과 신앙의 융합에 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매우 즐거운 것이며, 예배를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때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수용한 그는 과학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것 외에 실제로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신앙은 그저 ‘미신’이라고 믿었다고. 신앙을 과도하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도 이같은 신념을 형성하는데 한몫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한 감리교 목사가 건넨 C.S.루이스의 책이 신앙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였다. 콜린스 원장은 “옥스포드 학자였던 루이스 박사 역시 신앙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었으며, 무신론 신념을 박차고 나와 (나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면서 “책장을 넘기면서 신앙에 반대하

는 나의 주장이 한 남학생의 주장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를 아끼시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이해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콜린스 원장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다. 그는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과학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가르키는 것들이 많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 우주가 복잡성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자연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2차 미분방식의 우아한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자연은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 뒤에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이는 마치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콜린스 원장은 “내 안에 여전히 창조주에 대한 질문이 있고, 창조주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이처럼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오한 질문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콜린스 원장은 49년 전, 새벽 피서픽 노스웨스트 캐스케이드 마운틴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마침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다짐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콜린스 원장은 “이 세계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 지난 15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믿게 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셨다. 이는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지 입맞춤’ 거부한 이유

“교회의 전통 무시한다” 지적받자 “위생 때문” 해명



프란치스코 교황의 ‘반지 입맞춤’ 거부로 논란이 일자 교황청이 28일(현지시간) “위생 때문이었다”고 공식 해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 로데로 성지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들이 존경의 의미로 그의 반지에 입맞춤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듯이 오른손을 뒤희로 빼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교황의 이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가톨릭 교인들 사이에서 교황이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교황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가 자신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태도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공보실 대변인은 “반지 입맞춤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를 나누었다”며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황은 (행동) 동기가 매우 단순하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균에) 전염될 위험을 피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의 수가 적을 때는 반지 입맞춤 받는 것을 좋아한다”며 “27일에는 교황이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영상캡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받은 가장 커다란 감격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운 기억이 몇 가지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시골집 뒤뜰의 살구 열매를 마음껏 얻은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주렁주렁 달린 살구를 따기 위하여 돌을 던지는 저를 보시고, 아버지는 가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구나무를 몇 번 발로 차셨습니다. 살구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살구는 받고랑에, 도랑에, 뒷마당에, 풀 숲에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살구를 씻어서 어떻게 먹었는지는 생각이 전혀 안나고, 살구 떨어지는 광경만이 되살아옵니다.

놀이가 없었던 저는 개 밧곳에 흙을 채워, 뒷밭 옆의 도랑둑에서 땅강아지를 잡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오셔서 삼으로 도랑 옆의 흙을 파서 밧곳 위에 뒤집으셨습니다. 마구 돌아다니는 땅강아지를 개밧곳에 담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요. 당시 저에게 아버지는 능력자였고 종종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공급자였습니다.

부요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참으로 풍성하시고 더더욱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결핍으로 침울하며, 실패로 우울하고, 병들어 신음하고 슬퍼할 때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많습니다. 아픔은 우리의 개인생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나 남북한 관계, 미중무역전쟁을 통한 국제적 갈등, 선교지의 폐쇄적 정책으로 말미암은 복음전파의 제한과 철수 그리고 타종교의 공격적 활동 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쏘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사 64:1).

이사야의 기도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부흥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부흥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인의 채움과 환희, 만족과 교회의 성장을 주시지만, 단순히 외면적인 변화와 나 중심의 만족으로 마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외적 결과만을 추구함은 우리는 자기만족적, 성공주의적인 부흥 추구라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시 “숨 쉰다”는 말입니다. 즉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시 살아나다” 즉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다시 기력을 찾는다” 곧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소성(蘇醒)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 성령의 역사이며, 이로서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즐거움과 넘치는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흥집회에 와서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아이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을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아마 속 썩이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출생의 비밀(?)을 남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아버지와 닮은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이야기에 설마... 했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와 불어뻑이 돼가는 모습에 영락없는 아버지의 자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식성이 비슷한 것부터 사소한 몸짓이나 제스처까지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배어 있음에 몹시 놀라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의 말을 들으실 때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입을 동그랄 게 오므리시던 모습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요즘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오므리고 있는 것이었습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니다. 결국 아버지를 닮은 저를 보며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핏줄이며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남남이 만나 닮은 구석 하나 없었는데 같이 살다 보면 세월의 흔적에 굽이 굽이 잡힌 주름이 두 사람을 비슷하게 만든다 봅니다. 사진을 찍어 보면 틀림없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뚜렷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어느새 세월의 풍파에 깎인 듯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얼굴은 남매간의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너무나 뚜렷하게 태어난 늦둥이 막내를 보며 '내 아이

가 맞아'라며 농담을 했는데 이 별종이 자라 가며 형제들과 닮은꼴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면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남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를 닮은 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씩 나타나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차 분하면서 도 따뜻한 말투... 성경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오는 이런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영적 고아와 같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주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게 신기해서 스치는 봄바람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경지

지난 주,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아들, 선교 형제에 대한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형제는 현재,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쥘리아드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교 형제가 발성에 관한 지도를 받던 중, 교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허벅지에서 소리를 낼 줄 아는구먼. 보통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은데, 그렇게 소리 내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 형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한 발성이라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저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발성을 알아봐주셨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또 그런 발성이 이미 성악가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발성법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허벅지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 머릿속에 “경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사실, 운동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 일반인은 오르기 어려운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는 오랜 인내와 수고를 한 사람만이 경험하고 터득하는 수준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높은 차원의 신앙의 경지가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에 회개와 거룩에 있어서 놀라운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감사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자신의 몸을 장미 밭에 던졌습니다. 고행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으로 인해 생긴 자연스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 밭에 가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는 그 장미 밭은 가시가 없는 장미 밭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화는 예전에 설교예화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 다시오 가시와 영경귀는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자연에 임한 최초의 저주,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장미 밭에 가시가 없어진 사건은 한 사람이 지극한 회개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추구하니, 죄로 인해 생긴 저주받은 자연에 회복이 일어났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에도 경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지극히 실천하고 훈련하면, 기도를 지극히 많이 하면, 말씀에 지극히 순종하면, 남에게 지극정성으로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우리도 훈련하면, 허벅지로 발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동부와 고등부 사역자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동부와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걸림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 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iclarkmsn@gmail.com
To, Pastor Clark Choi / 최 클락 목사 - 교육부 담당목사
- 5.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 (909)591-6500 | Info@sunhanchurch.com

파송선교사 모집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는 해외 장기 선교사로 파송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습니다.

- 1. 모집기간**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5월 31일(금)
(당일 도착하신 분까지 받습니다.)
 - 2. 모집대상**
-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 선교사로 준비 중이신 분
- 일정기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가 준비한 선교 교육과 훈련을 신실하게 수료하실 수 있는 분
- 5년 이상 장기간 선교사로 헌신 가능하신 분
 - 3. 파송 예정 지역** : 추후 협의
 - 4. 사역**
팀 선교를 통해 현지 지도자 양성에 비전이 있으신 분
 - 5. 지원서류**
- 이력서 (사진 부착, 연락처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별도의 가족사진)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및 선교 소명에 관한 항목을 필히 기재)
- 신앙고백서
- 선교 사역 계획서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계획서 포함)
- 추천서 2통 (현 담임목사, 전 현직 선교사 각 1통)
 - 6. 접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선교위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 7. 문의** : 교회 사무실 (TEL: 714-893-1652)
- * 서류 접수만 받습니다.
* 보내주시는 서류는 반송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여부는 전화로 개별 통지 합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학교,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 scottkimstudio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160 (디자인 포함)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학교,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기독교 신학, 분열과 투쟁과 파국의 현 시대 구원할 수 있다”

김용규 작가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문명 이야기>를 통해 2천년 기독교 신학과 신학의 넓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드러낸 저자가, 1년만에 그 중 한 부분을 떼어내 새로 조각해낸 듯한 또 하나의 ‘작품’이다.

<신> 출간 후 이뤄진 강의를 토대로 한 이 책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철학과 신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흔적들을 조망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탈근대)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고 있는 본격 무신론의 시대(호모 데우스)에 대항해, 기독교가 제시해야 할 ‘공허와 맹목 사이로 난 길’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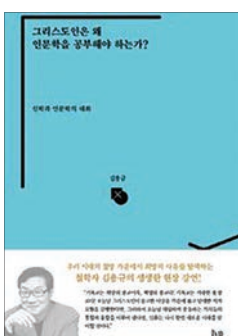
저자는 “기독교 신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드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폭넓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학문이 그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일 학문(scientia prima)”이라며 “신학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세속적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한다.

그러면서 “이 자부심은 지난 2천년 동안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목숨 바쳐 지켜 온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우리가 도 경지를 갖고 이 위대한 전통의 일부가 되자고 권하기 위해 이 작은 책을 썼다”고 전했다.

기독교 신학이 “지난 2천년 동안 성서의 계시와 시대의 인문학, 신앙과 이성,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즉 서로 이질적이고 때로 상반되는 둘이 만나 빚어낸 거대하고 아름다운 정신적 구조물”이라는 저자의 정의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 안에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의 통합과 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논리, 지식, 지혜, 경험이 쌓여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오직 기독교 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분열과 투쟁과 파국의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기독교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요,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사상과 사조들의 숏한 도전 속에서 그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아 마침내 자기의 것으로 만들으로써 스스로 풍성하고 강해지는 길을 걸어온 ‘거대한 용광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합과 융합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김용규 | IVP

의 용광로 안에서 시대마다 새롭게 드러나기 마련인 ‘기존 가치의 공허함과 새로운 가치의 맹목성’이 상호 해소되고 보완되어 온전한 가치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온전함을 지향하는 신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모 데우스, 호모 유스티스, 데이터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들도 수용해, 말씀에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신학이 공허해지지 않고, 인문학이 맹목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독교 신학이 매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잇는 건설한 교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왜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한 인문학자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펴낸 김용규 작가에게, 독자로서 몇 가지를 질문했다. 작가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각주까지 첨부한 ‘대답’을 메일로 보내왔다. <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문명 이야기> 발간 이후 1년만에 이뤄진 작가와의 일문일답.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에서 ‘포스트(脫) 기독교’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성(理性)을 한 축으로 하는 신학이 ‘이성을 토대로 한 근대성의 해체’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과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 드러난 기독교 신학의 장점은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사상이나 사조를 배척하기보다, 끌어안아 거기서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은 흡수하고 부정적 측면은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성장해 왔다는 것이지요. 저는 기독교 신학은 포스트모더니즘도 역시 그런 식으로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겠지요! 이 말에는

2,000년을 축적해온 기독교 신학은 그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약간 낙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의 저자이자 칼빈대학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와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포스트모던 시대의 철학과 신학>의 저자인 존 카푸토(John D. Caputo)가,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미 들여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성에 상처 입은 기독교 신학과 교회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함께 주장합니다. 스미스는 포스트모던 신학을 통해 우리는 초기 교회와 근대 이전 교회의 전통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포스트모던 신학이 일정 부분 기독교에 기여할 것 등도 설교하지요. 한편 수긍되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만큼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의 대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한동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미 우리 시대를 장악하여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까지도 ‘카르페 디엠’,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소확행(小確幸)’과 같은 신조어들을 사용해 가며 ‘포스트모던하게, 너무나 포스트모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본적인 면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과 충돌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이 없었다. 무신론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반복되었을 뿐이다’는 영국의 문예비평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글턴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이미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교회와 신학의 올바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각성과 통찰뿐 아니라, 기독교 저널리스트와 저 같은 저자들의 분별력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작가

신학,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 자부심 가져도 좋아 신학은 대립되는 요소의 통합 이뤄낼 수 있어 이질적인 것들 끌어안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 지녀

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할 일인 만큼 앞으로 쓸 다른 저술들을 빌려 거듭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만, 책에서 ‘온전한 신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해법의 윤곽을 대충 그려놓았습니다.”

-책을 통해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가 남아 있습니다. 초보자들을 위해 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철학과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문학이란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을 가리키는 총칭일 뿐, 어느 특정한 학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하기가 더욱 난감한데, 물어 오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느 학문이든 비전공자가 가장 경제적으로-다시 말해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끔-공부하려면, 그 학문의 역사를 조망한 책을 먼저 한 권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어느 특정한 철학 사조나 철학자에 대한 책보다는, 간단한 철학사 책을 한 권 골라 읽으시라는 거지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사나 교회사 또는 기독교 사상사 책을 한 권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균형 잡힌 식견이 생기는 데, 그것이 그 학문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2,000년 기독교 신학사에 영향을 미친 서양 철학을 총망라해 정리한 존 프레임(John M. Frame)의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생명의말씀사, 2018)는 일석이조라는 의미에서 추천할 만합니다.”

-여전히 인문학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장 기독교와 접점이 많은 인문학적 콘텐츠를 제시해 주신다면.

“어느 분야든 그 분야 책들 가운데 관심이 가는 저자의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기독교와 접점이 많은 인문학적 콘텐츠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인 신학자나 작가가 쓴 책이 더 좋겠지요. 근래 눈여겨 본 책을 몇 권 추천한다면 이렇습니다.

- 도스토옙스키-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화, (투르나이젠, 포이에마)
 - <마침내 시인이 온다>, (월터 브루그만, 성서유니온)
 -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칼 가이버슨, 새물결플러스)
 - <인간의 타락과 진화>, (윌리엄 카바노프, 제임스 스미스, 새물결플러스)
 - <신이 된 시장>, (하비 콕스, 문예출판사)
 - <신학과 사회이론>, (존 말랭크, 새물결플러스)
 - <배제와 포용>, (미로슬라브 볼프, IVP)
 - <광장에 선 기독교>, (미로슬라브 볼프, IVP)
 - <앤드 슈사쿠의 문학 강의>, (앤드 슈사쿠, 포이에마)
- 이대용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 ◆ 학사 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 석사 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 ◆ 박사 과정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봄학기 개강 3월 31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밟,(학문의 길) 씹,(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봄학기개강 3월 31일

입학상담: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월드미션대학, 간호학 'RN to BSN' 과정 신설

간호학과 이영주 과장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에 신설되는 간호학과 이영주 과장은 간호학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희생은 기독교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 의료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간호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는 'RN to BSN' 과정을 신설해 학사 학위가 없는 전문 간호사(RN, Registered nurses)가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교수, 시설, 인가, 학사 행정 등의 분야를 위해 모금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6일에 십수명의 정원을 모집해 개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월 2일에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후원의밤도 기획하고 있

다. 다음은 간호학과 이영주 과장의 일문일답.

간호학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월드미션대학이 30주년을 맞아서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월드미션대학에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건강을 다룰 수

있는 간호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 기본 정신이 사랑과 희생인데, 기독교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직을 갖추고, 학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RN to BSN' 과정을 시작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준학사도 졸업하지만, 병원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다. 위치를 리더십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원하는 분들이 학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학사가 없으면 대학병원에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학사 공부 기간과 이에 대해 더 설명을 한다면.

준학사에서 교양, 기본적인 리더십, 해부학, 생리학, 기술에서 전문적인 지식 등 리더십을 공부하게 된다. 3학기로 해서 18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점은 3년 동안 48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 진행하려고 한다.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간호사는 인간을 대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1:1 오프라인 공부가 좋다.

저희 대학 특징이 LA 다운타운 부근이자 한인타운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시설이 넓고, 신학과 음악을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과도 교제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학교에서 의료선교를 하는 장점도 있고 ABHE 인가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파에넬설 에이드 및 학비 융자와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도서관도 잘 구비되

어 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은 학비인데,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 'RN to BSN' 과정보다 학비를 저렴하게 책정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서 1만 2천불로 시작을 했다. 다른 학교는 2-2만 4천불 정도 한다.

커뮤니티컬리지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저희는 다른 대학과 비슷한 조건에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있다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 등록 시 입학금 300불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학은 8월 26일에 하고, 다음 봄학기 개강은 1월 27일이다. LA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 또 리더십, 행정, 연구 등 마스터로 가기 위해서는 간호학적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입학 조건과 교수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한국에서 간호학 석박사까지 공부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학에서 22년간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온라인 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오픈해서 I-20 발행해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기 위해서다. 첫 수업은, 한국어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가 일하던 필리핀 계통의 임상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라몬 교수가 좀 더 실습에 가까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는 영어 강의

도 하려고 한다.

입학 조건은 미국에서 어소시에이션 디그리, RN 라이선스를 따신 분, 그리고 GPS 2.0 이상으로 조건으로 만들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간호학과 졸업하고 한국 간호면허증, 미국 간호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입학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한국 간호사이면서 미국 간호증 취득이 가능해서 이곳에서 면허증 받은 분들이 꽤 있다.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시험 비자 스크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 현지병원에서 OPT를 진행하려 한다.

한국에서 신학대학 간호학 교수로 22년 동안 있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간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월드미션대학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간호학과 설립을 돕고 있다.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월드미션대학은 봉사나 의료 선교 관심이 많아서 이끌린 부분이 있었다. 예전에 의료선교를 15년 동안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지에 많이 다녀왔었는데, 준비되어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게 목표이다.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간호사는 희생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환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다. 환자들이 화를 내거나 심지어 때리거나 할 때도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 임상에서 힘들 때마다 좀더 변화하고 싶고 프로모션을 해서 좀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좀더 공부해서 리더십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의) yilee@wmu.edu, 213-388-1000, 213-249-0800 토마스맹기자

'교회오빠' 故 이관희 집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했던 이유



영화 <교회오빠> 스틸컷. ©커넥트픽처스 제공

지난 2017년 TV 방영 직후 '명품 다큐멘터리'로 불리며 전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KBS 스페셜 '얇: 교회오빠'의 주인공 故 이관희 집

사.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오빠>가 5월 16일에 개봉된다. 생전 이관희 집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최우

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으며 ROTC 42기로 최전방 백골부대에서 통신장교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다국적기업 웰컴에서 연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딸 '소연'이를 낳고 얼마 후 알게 된 자신의 대장암 4기 판정이었다.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함께 대장암 4기라는 절망을 맞닥뜨리게 된 故 이관희 집사. 하지만 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연이어 거짓말처럼 아내 오순주 집사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진 것. 새로 태어난 생명을 앞에

두고 어머니를 잃고 자신과 아내의 암 진단까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 故 이관희 집사는 그럼에도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희망과 웃음, 믿음으로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화 <교회오빠>의 이호경 감독은 겸손하고 맑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는 故 이관희 집사의 모습에 그의 삶을 기록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한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신들의 투병이 다른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촬영을 결심한 故 이관희 집사, 그는 유난히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촬영

장에서도 스태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살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故 이관희 집사는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충실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한 故 이관희 집사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 <교회오빠>는 오는 5월 16일 개봉한다.

김신의 기자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동맹회 (총회장 김신구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1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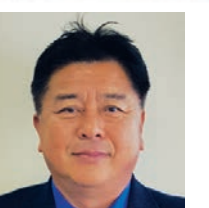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p>저렴한 회비 월40월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p>	<p>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p>	<p>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p>
<p>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p>	<p>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p>	<p>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p>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